

광주 고용률 6개월째 감소...“9월이 더 걱정”

호남지방통계청 발표 '8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취업자 1년 전보다 광주 6000명 줄고 전남 4000명 늘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광주 30대·전남은 50대 타격 커

“9월이 더 걱정이다.”
지난달 광주 취업자가 6000명 감소하면서 6개월째 고용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지표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반영되지 않아서 고용률과 위력은 9월에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광주 74만7000명·전남 98만2000명으로, 각각 1년 전보다 6000명 줄고 4000명 늘었다.

광주지역 취업자는 지난 6월(2000명 증가)과 7월(2000명) 회복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또다시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광주 고용률은 지난 3월(-1.1%포인트)부터 8월(-0.9%포인트)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전남 고용률은 지난 달 0.8%포인트 증가했지만 전남(1.5%포인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 8월 취업자가 2000명 증가했지만, 이는 겸업을 해온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경

기 불황으로 본래 농어업 생업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생긴 반대급부였다.

전남 농림어업 취업자는 1만8000명(8.8%) 증가했지만, 나머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8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000명), 건설업(-2000명) 등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실업자가 각각 1년 전보다 2000명, 6000명 줄면서 실업률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구인·구직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기업은 채용을 하지 않았고, 미취업자들도 고용률과 관련해 제대로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광주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9000명 늘어난 50만 5000명으로, 2017년 1월(51만2000명)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5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줄었지만 전남보다는 1만4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광주지역에서는 30대, 전남에서는 50대 타격이 컸다.



광주 30대 취업자 감소 폭은 1만1000명으로, 10대와 40대(각 -1000명) 감소 폭의 10배를 넘겼다. 20대와 5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00명씩 증가했고, 60대 취업자는 4000명 늘었다.
전남지역은 50대 취업자가 무려 1만명 감소했다.
이어 20대(-4000명), 30대(-1000명) 감소 폭이 컸고, 60대(1만6000명), 10대

40대(각 2000명)는 취업자가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광주지역 취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6000명·3.8%)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산업 취업자가 감소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5000명(-1.6%), 광공업 3000명(-2.8%), 건설업은 3000명(-3.6%)이 취업자가 줄었다.

호남통계청 측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인 것은 이쪽 산업이 회복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맘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용이 잘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거리두기 강화와 재택근무 여파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와 배달 수요

증가가 관련 취업자 증가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달 전국 취업자 수는 또 줄어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8월 취업자는 27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4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1%로, 8월 기준 2018년(4.0%) 이후 최고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75.81(-26.10) ↓ 금리(국고채 3년) 0.915(-0.034)
- ↓ 코스닥 869.47(-8.82) ↑ 환율(USD) 1189.10(+2.70)

광주은행, 올해 신입행원 30명 공채 인원 80% 이상 광주·전남 인재 선발

14~22일 원서접수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올해 신입행원 채용일정을 발표하며 인원 80% 이상을 광주·전남 인재로 채용 계획을 밝혔다.

광주은행은 오는 14일~22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3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최대 50명 넘게 신입행원을 채용해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내정고객이 줄면서 올해 규모는 다소 축소됐다고 광주은행 측은 설명했다.

모집 분야는 증권행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초급행원(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증권행원은 지역인재, 일반인재, 디지털·ICT, 통계·수학으로 나눠 모집하며, 이중 지역인재 및 디지털·ICT 부문은 광주·전남지역 출신(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만 지원가능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 지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NCS·일반상식),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필기 전형과 면접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자를 대상으로 초급행원을 모집해 취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는 유튜브 채널 '광주은행TV'에서 비대면 채용설명회를 연다.

송중욱 행장은 “코로나 19로 기업 채용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고용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정과 패기, 도전정신을 지닌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체 채무자들 빚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채무자 방어권 확대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채권자·주식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스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신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담보가 없는 채권이어도 채권액이 5억 원 이상 고액이면 채무조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관원 낙과 줍기 봉사활동 도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8일 태풍 '마사'와 '하이산' 피해를 입은 나주시 금천면 배 농가들을 잇따라 방문해 낙과 줍기 등 일손을 도왔다.

상반기 문 연 영세·중소 사업체 18만8000곳 카드 수수료 평균 34만원·650억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 영세·중소 사업체 18만8000곳이 모두 650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평균 34만원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곳이다. 폐업가맹점 약 4000곳도 포함됐다.

환급 금액은 총 649억7000만원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으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상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약 21만개의 89.6%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이다.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는 금액은 461억 2000만원으로 전체의 71% 수준이며, 중소기업(연매출액 3억~30억원) 환급액은 188억5000만원(29%)이다.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환급 대상이었다.

환급액은 이달 11일까지 입금된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용은 신한·삼성·롯데·하나·현대·비씨·KB국민·NH농협 등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가을에 '뉴트로' 하실래요?

문화상품, 카페, 생필품 북고 마케팅 열풍 - 90년대 감성 그룹, 레트로 음반 러시 - 여기가 레트로 '캠성' 넘치는 곳

기획: 화가가 사랑한 정원 모두의 명소가 되다
"죽설현 '운보의 집' 모네의 정원 민명희씨의 화가의 정원사채"

문화는 품은 건축물 ②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빼어난 건축미 입소문 신안 압해읍종합복지회관

클릭, 문화현장 ① 목공, 주얼리, 도자기 등 체험 양림 팽귤마을 공예특화거리

예향이 만난 이 사람 KIA 타이거즈 마운트 고졸 루키 셋별 정해영

예향 초대석

한복 디자이너·전통 복식연구가 김혜순
"한복 짓기는 자기다움 찾아가는 것"

우리 땅 우리 문화 ③ '불법이 머문' 천년 고찰 속리산 법주사

문화 트렌드 5060 세컨드라이프 '슬기로운 집콕생활'

문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프로그래진 심장을 짝 펴자" 8월의 책,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전시 리뷰 이강미술관 <2020 Earth & Museum 7주째 2020>전

스포츠 회제 유현준의 도시건축 ④ 부동산 정책의 정치학

세계가 열광, 한류 스타의 아제와 오늘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④ 바그너의 '종합예술' 혁명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④ 화가 박인식의 할매공방

자녀속 가족과 함께 쓰는 정감 어린 편지

심진강과 철길따라서 - 트릴 토란, 명품 멜론